

The Mediating Effect of Presence of Meaning in Life between Depression and Warning of Relapse in Alcoholics

Hae Sook Kim^{1#}, Yun Hee Choi^{2*}

¹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60 Honamdae-gil, Gwangsan-gu, Gwangju, Korea

² Dasarang Hospital, Dasarang Hospital, 224 Poongseouro, Seo-gu,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depression and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ffect warning symptoms of relapse in alcoholic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0 alcoholic inpatients who were treated in an alcohol hospital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of South Korea over three months between November 2019 and January 2020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of mediating parame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warning symptoms of relapse in alcoholics.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warning symptoms of relapse in alcoholics,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warning of relapse in alcoholics. The findings suggested further research studies to prevent relapse in alcoholics.

Key words: alcoholics, depression, presence of meaning in life, warning of relapse, mediating effec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독(addiction)은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 및 영적 안녕까지도 크게 손상시킬 수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위를 멈추지 않고 강박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Young & Abreu, 2010). 이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정신건강 영역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재발이 높은 질환으로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들의 재발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 중 퇴원한지 3개월 이내에 50%~60%가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1995). 국내 연구

The 1st author: Hae Sook Kim, Tel. +82-43-940-5477, Fax. +82-43-940-5217, e-mail. 2015154@honam.ac.kr

* Corresponding author: Yun Hee Choi, Tel. +82-43-380-3810, Fax. +82-43-380-3810, e-mail. clara20082@nate.com

에서도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82.1%가 재발하고(Kim, *et. al.*, 1994), 4개월 이내에는 71.5%가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퇴원 이후 1년 이상 단주를 유지하는 경우는 전체의 14.5%에 불과했다(Kim, 1994). 보다 최근의 자료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채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재발하여 입원한 비율은 42.6%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높은 재발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연구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는 만성화되는 등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은 재발을 촉발시키는 요인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를 완화시키거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발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과 재발간의 관계에 삶의 의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발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 분노, 좌절, 불안,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알코올 사용을 촉발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Chae, 2006; Chae, 2005; Grantz & Pickens, 1992). 특히,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가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재발 시기 혹은 그 직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우울, 고독과 같은 감정을 가장 빈번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Marlatt, 1985). 재발 환자 집단과 재발하지 않은 환자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재발 집단의 우울, 불안, 신체 증상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비재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inney & Moos, 1991). 이 중 우울은 알코올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알코올 중독 환자 중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 자

살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주를 이행하거나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yun, *et. al.*, 2013). Chae(2006)의 알코올 중독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심할수록 재발경고증상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ker, *et. al.*, 1987; Ryff, 1989). 실제로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Yoo,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고통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Ryff & Singer(1998)는 삶의 의미를 삶에 대한 목표 지향성, 목적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scaro, *et. al.*(2004)은 행동을 하는 의도 혹은 행동의 이유라고 하였다. 이후 Steger, *et. al.*(2004)은 삶의 의미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첫 번째는 의미 추구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지향 혹은 동기를 뜻한다. 다음은 의미 발견으로 자신의 삶이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다만, Steger, *et. al.*(2004)에 따르면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의미 추구는 삶에 대한 의미의 결여로 인해 활성화되므로 이 때 개인은 우울, 슬픔, 좌절 등의 정서적 혼란, 내적 긴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미 추구라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그 결과물로 도출되는 의미발견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 말기암 환자, 뇌졸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발견은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감, 상실감 등을 상쇄시키고, 심리적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 *et. al.*, 2019; Cohen & Cairns, 2012). 그러나 삶의 의미가 심리

적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나 노인 등 죽음에 당면한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확장하고자 하였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 상실을 경험하며, 소외감과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종국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된다. 이는 다시 음주를 촉발 및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Steger, et. al.(2004)이 주장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두 개념 중 의미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발견이 우울과 재발 경고 증상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발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재발과 비재발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재발을 치료의 실패로 간주하고, 비재발은 성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재발이 치료의 실패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행동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Witkiewitz & Marlatt, 2004). 알코올 사용 환자에게 대한 치료가 정신건강의 학과의 외래 진료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경우에는 재발, 비재발 보다는 조절 음주인지, 폭음인지가 치료 효과를 살펴볼 때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많은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알코올 사용 환자들이 일회성 음주를 했더라도 이는 지속 음주로 이어지므로 재입원을 해야 한다는 국내의 임상가들의 지침을 고려할 때 음주 재개 자체를 막는 것이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임상현장에서는 폭음을 하는지, 조절 음주를 하는지 보다 다시 음주를 시작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Chae, 2005). 알코올 사용 환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재입원 자체가 재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증상 악화로 인한 재입원은 재발의 하나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Ba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음주를 재개해 알코올 전문 병원에 2회 이상 재 입원한 경우를 재발로 조작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발의 위험성 및 우울, 삶의 의미 등을 연구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가설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알코올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를 삶의 의미 중 의미발견이 부분 매개할 것인가?

2. 연구 가설

알코올사용 환자의 삶의 의미 중 의미발견은 이들이 보이는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2회 이상 재입원하여 알코올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에서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4. 연구대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2회 이상 재입원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사용 환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 여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예측변수 3개,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 크기 0.15,

검정력 0.80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표본크기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실제 연구에 참여할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G power를 통해 산출된 표본의 크기를 상당수 초과하는 27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만, 자료 수거 결과 공란이 있거나 성의 없이 응답한 9명의 자료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270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는 208명(77%), 여자는 62명(23%)이었으며, 나이는 21세에서 77세 사이로 평균 50세(SD=11.10)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알코올 사용 환자로 이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 사전 고지하였으며, 자유롭게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기입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측정치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관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서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구두로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사인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사인한 후에도 동의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경우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에 대한 동의 철회 시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파기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설문지 및 동의서는 분리하여 수거하는 등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5. 측정도구

1)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hon, et. al.(2001)이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 가지 한국판 CES-D를 비교, 검토 후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감정의 빈도를 0점(극히 드물다)에서 3점(대부분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연구자들 및 임상현장에서 알코올 환자들을 진료 및 치료하는 임상 현장 치료팀과의 회의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및 사용의 용이성 면에서 인정 받아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Chon, et. al.(2001)의 연구에 따르면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로 나타났다.

2)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 et. al.(2004)이 개발한 척도를 Won, et. al.(2005)이 한글로 번안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미 의미발견과 의미추구라는 두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발견은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며, 의미추구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을 뜻한다. 문항은 총 10개로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의미발견은 5문항, 의미추구는 5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의미발견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척도가 전무한데다 임상 현장 실무진과 본 연구의 연구자들간의 논의 결과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데 합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선택하였다. 본 척도는 Won, et. al.(2005)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이중 의미발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었다.

3) 재발 경고 증상 척도(Advance Warning of Relapse Questionnaire: AWAR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재발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Chae & Oh(2006)가 Lowman, et. al.(1995)의 재발 경고 증상 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후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Miller & Harris(2000)의 연구에서 재발 경고 증상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적 일치도는 .93이었으며, 두 달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알코올 환자의 재발 경고 증상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다는 임상 현장 실무진과 연구자들간의 회의를 통해 본 척도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93으로 나타났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t-검증 및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재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연구 대상자 전체 집단과 성별에 따라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남성은 전체 270명중 208명이었으며, 여성은 62명이었다.

Table 1. 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Mean(SD) (n=270)	Male (n=208)	Female (n=62)	t (p)
Depression	21.10 (11.62)	20.11 (11.34)	24.44 (12.04)	-2.60 (.01)
Presence of meaning in life	24.31 (7.04)	23.90 (7.18)	25.68 (6.43)	-1.75 (.08)
warning symptoms of relapse	70.33 (25.29)	70.65 (25.64)	69.23 (24.27)	.39 (.69)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의미발견이라는 측정 변인들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재발경고증상의 경우에는 남자가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 중 우울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대~30대(n=46), 40대~50대(n=168), 60대~70(n=56)대로 연령 집단을 구분한 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집단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측정 변인인 우울, 의미발견, 재발 경고 증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은 재발 경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의미 발견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히, 의미 발견은 우울 및 재발 경고 증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바, 의미발견이 우울 및 재발 경고 증상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전체 변인들 간 상관은 .8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5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존재). 이와 함께, 회귀 분석 실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 또한 0.912로 1에 근접해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presence of meaning in lif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variables	1 (p-value)	2 (p-value)	3 (p-value)
1. Depression	-		
2. Presence of meaning in life	-.25 ($p<.001$)	-	
3. warning symptoms of relapse	.64 ($p<.001$)	-.284 ($p<.001$)	-

3. 우울과 재발 경고 증상간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우울과 재발 경고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Hayes의 Process Macro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미발견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우울은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beta=.637, p<.001$)을 미쳤고, 2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의미발견에도 유의한 영향($\beta=-.18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3단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였고, 우울($\beta=1.262, p<.001$)과 의미발견($\beta=-.689, p<.001$)의 영향력 모두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미발견이 우울과 재발경고증상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0193~0.2936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우울이 의미발견을 부분매개로 하여 재발경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라는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 집단에 따른 경로 계수에 대해 $\Delta \chi^2$ 비교 검정한 결과, 모든 경로의 $\Delta \chi^2$ 가 임계치인 3.84보다 작게 나타나($\Delta \chi^2 =.15\sim 1.98$)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들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알코올 사용 환자 모두 우울이 의미발견을 부분 매개로 하여 재발경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에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삶에 대한 의미발견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부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은 재발 경고 증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우울이 심할수록 재발경고증상 또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우울과 삶에 대한 의미발견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하여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우울이 심할수록 자신의 삶을 의미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의미발견과 재발 경고 증상 간에도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resence of meaning in life between depression and warning of relapse

step	Model	B	β	Adj.R ²	F (p)
1	depression->Warning symptoms of relapse	1.386	.637	.403	182.916 ($p<.001$)
2	depression->presence of meaning in life	-.180	-.297	.085	25.904($p<.001$)
3	depression->Warning symptoms of relapse	1.262	.580	.435	104.592 ($p<.001$)
	presence of meaning in life->Warning symptoms of relapse	-.689	.192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depression->presence of meaning in life->Warning Symptoms of relapse		.123	.071	.0193	.2936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있어,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지각할수록 재발 경고증상의 심각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음주를 다시 시작 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낮추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질환을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Son, *et. al.*, 2019; Cohen & Cairns, 2012) 심각한 신체적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는 지각이 우울감, 상실감 등을 상쇄시키고, 심리적 적응을 매개한다고 주장한 바와 일관성을 보인다. 다만 기존의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알코올 사용 환자들에게 확장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삶에 대한 의미 발견은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들의 재발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음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상현장에서 의미발견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실시한다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있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존의 임상현장에서는 이들의 우울,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그와 관련된 인지를 변화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및 대처 기술이 주요한 치료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알코올 사용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추가 분석 결과 삶의 의미 중 의미 추구하고 우울 간에는 부적 상관($r=-.167, p<.01$)을 보였으나 의미 추구하고 재발 경고 증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의미추구 또한 의미하지는 않으나 재발 경고 증상과 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미추구가 삶에 대

한 의미의 결여로 활성화 되는 바, 의미 추구가 추동되면 우울과 같은 정서적 혼란, 내적 긴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의미 추구 또한 의미 발견과 유사하게 우울을 감소시키고, 재발위험성은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로 음주 행위가 재발 되는데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 결과, 여성 알코올 사용 환자가 남성 알코올 사용 환자에 비해 연구참여율이 낮았으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는 우울증의 경우 남녀 성차가 보고되지 않다가 13~15세 경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이 더 경험하게 되면서 성인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Hyder, *et. al.*, 200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후 연구들을 위해 제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해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자기 보고형 질문지의 경우 응답에 있어 신뢰도 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들이 본 연구에서도 배제되지 못한 바,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나 실험을 통해 통제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 변인들을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하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우울과 재발경고증상 간의 관계를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삶의 의미에 대해 개념 정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의미 발견은 의미 추구, 혹은 그 이전의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획득되는 결과물로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라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 단계들과 알코올 사용 환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 및 재발 경고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 종단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알코올 사용 환자 집단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성별에 따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심각도와 경험의 빈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알코올 사용 환자의 특성 차이 뿐만 아니라 측정 변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환자 집단이라는 특정한 임상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바, 본 연구 결과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의미 발견이 이들의 부정적인 정서 및 심리적 안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s

- Bae, Seong Beom, Byung Ook Lee, Young Ki Kim, and Sang Jin Park. 2008. The Effect of Abstinence Programs on the Prognosis of Alcohol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2(2): 71-75.
- Brown, S. A. 1985. Expectancies Versus Background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1): 123-130.
- Brown, S. A., M. S. Goldman, A. Inn, and L. R. Anderson.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 Brown, S. A., P. W. Vik, T. L. Patterson, I. Grant, and M. A. Schuckit. 1995. Stress, Vulnerability and Adult Alcohol Relap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5): 538-545.
- Chai, Suk Hi. 2005. Predictive Psychological Factors for Relapse into Alcohol Dependence. Ph.D.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 Chai, Suk Hi. 200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Focused on MMPI, BDI, BAI.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4): 555-572.
- Chai, Suk Hi. 2006. Modeling Relapse of Alcohol Dependence: Psychological Risk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5(2): 121-142.
- Chon, Kyum Koo, Sang Chin Cho, and Beyong Chang Yang.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Cohen, K. and D. Cairns. 2012.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Well-being? Confirmation and Possible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y*. 13(2): 313-331.
- Finney, J. W. and R. H. Moos. 1991. The Long-time Course of Treated Alcoholism: II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10-year Functioning and Morta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3(2): 142-153.
- Glantz, M. D. and R. W. Pickens. 1992. *Vulnerability to Drug Abus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yde, J., A. Mezulis, and L. Abramson. 2008. The ABCs of Depression: Integrating Affective, Biological and Cognitive Model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the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115(2): 291-313.
- Hyun, M. S., J. H. Woo, and H. J. Kim. 2013. Insight, Self-esteem, and Coping Skills Among Patients With Alcohol Addi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 22(3): 137-46.
- Kim, Jeong Ju, Sang Ik Han, and Su Kim. 1994.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by Severity of Depression in Hospitalized Male Chronic Alcoholics. *Psychiatry Investigation*. 33(5): 1013-1033.
- Kim, Jong Seong. 1999. 1 Year Follow Up of Alcohol Dependents after Discharge for Abstinence Result. *Chungnam Medical Journal*. 56(2): 156-166.
- Marlatt, G. A. 1985. Relapse Prevention: Theoretical Rational and Overview of the Model, 3-67.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 G. A.

- Marlatt and J. R. Gordon.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scaro, N., D. H. Rosen, and L. C. Morey. 2004. The Development, Construc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the Spiritual Meaning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4): 845-86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 Reker, G. T., E. J. Peacock, and P. T. P. Wong. 1987. Meaning and Purpose in Life and Well-being: A Life-span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 42(1): 44-4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f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and B. H. Singer.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on, Jung A, Jin Ju Kim, and Myung Sun Hyun. 2019. Mediating Effect of Meaning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m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4): 373-381.
- Steger, M. F., P. Frazier, S. Oishi, and M. Kaler. 2004.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Witkiewitz, K. and G. A. Marlatt. 2004. Relapse Prevention for Alcohol and Drug Problem: That Was Zen, This Is Tao. *American Psychologist*. 59(4): 224-235.
- Won, Doo Lee, Kyo Hyun Kim, and Sun Jung Kwon.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2): 211-225.
- Yoo, Sung Kyung, Eun Seon Park, Soo Jeong Kim, and Hyo Jin Cho. 2014. Meta-analytic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Mental Health (Mainly of Domestic Studies Between 1996-2013).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2): 441-465.
- Young, K. S. and C. N. De Abreu. 2010. *Internet Addiction: A Handbook and Guide to Evaluation and Treat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281.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정수, 한상익, 김수. 1994. 일차성 성인남자 알코올독 입원환자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임상양상 비교. *신경정신의학*. 33(5): 1013-1033.
- 김종성. 1999.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퇴원 후 1년간의 단주 성적 및 재발에 대한 추적 결과. *충남대잡지*. 26(2): 159-166.
- 배성범, 이병욱, 김영기, 박상진. 2008.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단주 프로그램 수행과 재입원. *중독정신의학*. 12(2): 71-75.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손정아, 김진주, 현명선. 2019.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8(4): 373-381.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관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1997년-2013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41-465.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채숙희. 2005. 남녀알코올 의존환자의 심리적 특성: MMPI, BDI, BAI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555-572.
- 채숙희. 2005. 알코올의존의 재발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박사학논문. 전남대학교.
- 채숙희. 2006. 알코올의존의 재발모형 개발: 심리적 위험요소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21-142.

Received: Apr. 17, 2020 / Revised: May 18, 2020 / Accepted: May 18, 2020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위험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시의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에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재발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을 확인하고, 알코올 사용 환자의 치료 장면에서 적합한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검증 Anova 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 삶에 대한 의미발견, 재발경고증상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삶에 대한 의미발견은 우울 및 재발경고증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히, 삶에 대한 의미발견은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사용 환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알코올 사용 환자, 우울, 삶의 의미발견, 재발경고증상, 매개효과

Profiles **Hae Sook K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t Honam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9.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linical psychology & mental health(2015154@honam.ac.kr).

Yun Hee Choi : She completed a doctorate in clinical psychology courses in 2016. She has been working as a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since 2002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n addiction therapist in an alcoholism treatment hospital (clara20082@nate.com).